

미디어 담론에 나타난 제례문화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 명절차례를 중심으로 -

이철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A Study on the Change and Continuation of Ritual Culture in Media Discourse -with a focus on ancestral rites in commemorative days- Chul-Young Lee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t a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차례의 현황과 성격의 변화를 주도한 주요 담론으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미디어 담론에 집중된 차례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례 만들기’의 성과가 차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제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사회의 제례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9년까지 게재된 135개의 기사를 통해, 1970년대까지는 ‘명절 상차림’의 전승 시기로, 1980년대부터는 ‘명절 차례 만들기’를 통한 변화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기사 내용의 분석을 통해 ‘명절 상차림’이 전통 풍습과 명절 상차림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던 반면, 미디어 담론이 집중한 ‘명절 차례 만들기’로 변화과정에는 제수의 준비와 진설, 가가례와 금기의 논리 등을 통해 진행하면서, 차례의 제사화 논의는 물론 제사의 규격화를 시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시된 차례의 다양한 담론과 획일화된 모델은 제례 문화의 전반을 변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미디어 담론, 명절 상차림, 차례만들기, 금기, 가가례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media as a major discourse theory that led to changes i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 of commemorative rites for ancestors.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articles focused on media discourse, it was found that the achievements of "Making commemorative rites for ancestors Rite" were not limited to commemorative rites for ancestors Rite, but changed the overall culture of our society while affecting the issue of memorial for ancestors.

In particular, 135 articles published up to 1999 can be divided into a period of transmission of 'holiday table setting' until the 1970s, and a period of change through 'making holiday commemorative rites for ancestors' from the 1980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article, 'holiday table setting' focused on discussing traditional customs and holiday table setting, while media discourse focused on 'making holiday memorial for ancestors' through the preparation and a place setting of memorial for ancestors, the logic of family rituals and taboos, and attempted to standardize memorial for ancestors. However, the various discourses and uniform models of commemorative rites for ancestors presented in this process provided the basis for changing the overall culture of ritual.

Key Words media discourse, making holiday memorial for ancestors, a place setting of memorial for ancestors, taboos, family rituals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5140)

Received 09 Aug 2024, Revised 21 Sep 2024

Accepted 26 Sep 2024

Corresponding Author: Chul-Young Le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Email: welldying88@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세시풍속은 생업에 기반하여 관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례(儀禮) 행위이다. 전통사회에서 구성원의 삶 전체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농업활동과 연결되었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일상생활의 단락을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의례적으로 연행되었던 세시풍속은 농업활동의 단락과 연계되어 마침과 시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의례'와 '놀이'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업에 기반한 세시풍속은 소멸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계절적 연행이나 기념일 등이 이를 대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다른 세시풍속과는 다르게 '명절차례'는 전승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세시풍속으로 절사(節祀)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업에 기반한 의례적 행위인 세시풍속은 생산양식이 변화됨에 따라 전승력을 상실하고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설과 추석에 진행되는 민족적 대이동 과정을 살펴보면, 세시풍속의 차원을 넘어 명절로 이해되면서 전통사회와 현재를 잇는 민속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사회로 변화의 과정에서도 전승을 통해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차례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차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세시풍속의 관점에서 부분적인 논의나 차례의 도입과 정착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문화변동의 시각에서 차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나 통시적 시각에서 차례의 의례적 성격과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가가례'나 '홍동백서', '좌포우혜' 등 차례 진실과 관련된 결과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신문이나 잡지 등의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 그 변화과정을 추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례의 현황과 성격의 변화를 주도한 주요 담론으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미디어 담론을 중심으로 차례의 변화과정에 어떠한 역할과 작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1980년대에 집중된 '차례'에 관한 기사의 분석을 통해 '제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해되었던 '전통'의 문제를 '문화의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례 만들

기'의 성과가 차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제(忌祭)'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제례문화를 변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시풍속으로 진행되었던 차례가 생업은 물론 사회구조와 시대변화의 과정에서 소멸의 과정을 겪지 않고 전승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세시풍속은 물론 제례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통해 변화와 지속을 추동하는 담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차례의 유입과 의례화

'차례'는 15세기 중반, 왕실의 '茶禮'가 '宗廟茶禮'의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가례서가 아닌 『實錄』과 개인 문집, 세시기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6세기에 이르러야 사가에까지 전파되면서 제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는 『주자가례』의 '正至朔望'의 절차가 '俗節茶禮'로 풍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어 17세기에는 '생신차례'와 '고유차례'가 행해지고, '가묘제'를 대신하여 지내는 '묘제'와 '상례'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 그리고 '친신의례'도 '茶禮'로 이해되면서, '차례'를 중요한 제사 풍속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고, 근세에까지 이어지면서 토착화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茶禮의 종류와 다양성이 줄어들고, '속절차례'로 설과 추석에만 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주자가례』에서 「正至朔望」項 “... 陳設每龕前以盤盛新果 於卓子上 設菜之類 隨宜每位設茶盞托酒盞各...”이라 하여 '제사 형식의 차례'는 정조·동지, 삭망·속절, 有事와 喪禮의朝夕 奠儀 등이다. 이때 올리는 음식은 대체로 과일과 채소, 술 1잔과 차 1잔을 언급하고 사식하지 않았다. 다만, 망일에는 차만 올리고, 전의에서는 포·혜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주자는 속절제사는 소제이나 대체로 지내도 된다고 하여 그 폭을 좀 더 확대하였는데, “초하루 아침에는 가묘에 술과 과일을 쓰고, 보름날 아침에는 차를 쓴다. 단오와 백중과 중양 등은 모두 속절이라 한다. 대제 때는 신위마다 네 가지 음식을 쓰고 나무 신주를 내어온다. 속절소제는 가묘에 나가서 하는데 두 가지 음식으로 그친다. 초하루 아침과 민속 명절에는 술을 한 번만 올려 잔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차례의 종류로는 '고사茶禮'와 '시절茶禮'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사茶禮’는 ‘유사죽고’에 해당하는 간단한 제례 형식의 차례로서 삶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전후에 사당(묘)이나 신명에게 고하는 의례를 뜻한다. 반면, ‘시절茶禮’는 절일, 명일, 명절, 속절과 삭망에 행해지는 차례를 말하는데, 고려말에는 정조·한식·단오·중추가 중시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에 근거하여 동지(冬至)도 중시되었다. 정조는 속절(俗節) 중에서 명절을 가려 지내거나 별제(別祭)의 성격을 띤 대체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16세기에도 정조를 매우 중요한 명일로 여겨, 술은 비록 단작을 올리나 찬품은 특별히 성대하게 차렸다. 17세기에 대체로서 ‘茶禮’를 지낸 기록이 있고, 정조를 포함한 절기茶禮를 ‘정제’로 여겨 성대하게 지내기도 하였다. 홍대용이 쓴 『가묘茶禮식』을 보면, 절기의 ‘茶禮’는 정조·상원·삼짇날·유두·백중·중구일·동지를 들고 이를 정제로 여겨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례를 지내는 장소는 사당이나 가묘가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서 茶禮를 올리기도 하고, 묘소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보통의 茶禮는 가묘를 둔 자리에서 신주의 독만 열거나 신주를 꺼내어 독 앞에 세워두고 지냈고, 크게 지낼 때는 신주를 꺼내어 당이나 정침에 모셔서 제사하였다. 望茶禮는 신주도 나오지 않고 단지 독만 열고 부부 합쳐서 과일 한 접시 놓고 강신뇌주도 없으며 분향만 하였고, 삭망은 ‘茶禮’ 외에 ‘삭망전’이라고도 하여 전의로서 간단히 행하기도 하였다.

차례의 절차는 개독·분향·제배의 간단한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왕실의 주茶禮 예식은 분향, 진찬, 진다, 유식, 철상의 순으로 간단하였는데, 18세기 유중입의 ‘茶禮’ 순서는 분향제배, 뇌주, 참신제배, 단헌, 유식, 사신이었다. 1893년경에 지어진 『광의람』에는 ‘단헌인 경우에는 유식과 합문이 없고, 초헌에 삼시정저하고, 제배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사茶禮는 제수의 운송 폭이 제사보다 넓고 자율적이므로 형편에 맞추면서 양식이 무척 다양하게 행해졌다.

제찬의 종류도 임의적이었다. 차례의 제수와 관련하여 조선의 초기 예서인 李賢輔의 『祭禮』에서는 유사사와 천신제사에는 감실마다 과일 한 그릇을 올리고 무축에 단잔이었다. 이와 같이 임의적이었던 것은 그때그때 철에 따라 만든 시식이나 때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올리기 때문이다. 율곡은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삭망이

나 속절을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조상에게 간단히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아침저녁 상식이니 초하루 보름의 제전을 모두 간소하게 집안 형편에 맞추어서 경결하게만 행할 것이요, 절대로 부잣집에서 하는 식을 억지로 본받기 위하여 떡이나 면·탕·적 등을 풍성하게 장만함으로써 남의 눈에 보기만 좋고 자기는 빈궁에 빠지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1].

고 하였으며, 또 집이 가난하여 삭망에 술·과일을 준비할 수 없으면 분향하고 제배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中)을 중시하여 풍년이 들었을 때 사치스럽게 제사 지내지 말고, 흉년이라고 지나치게 검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례편람』에는 “진실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할 수 있다면 세속의 명절에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드리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여 茶禮에 갱·반만의 소찬도 무관하게 여겼다. 그러나 김상용(金尙容)은 『家廟茶禮식예』에서 반·갱·탕·적·어육을 갖추어 기제사처럼 지내는 예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동시대의 김봉조가 쓴 『제사절목』에는 茶禮의 ‘제물품수’에 관해, ‘삭망茶禮’에는 채·과·포·해이며, ‘속절茶禮’에는 채·과·포·해에 ‘시물’을 갖추었고, ‘정조·동지茶禮’에는 탕·적과 포·해, 실과·소채를 놓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지내기도 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실과 사가의 제사나 사직제사 등의 음식은 사시에 항상 거의 같으나, 茶禮음식은 시식이 있고 보름의 약반, 동지의 팔죽 등 숭상하는 음식도 있으며, 때로는 귀하게 만든 음식도 올릴 수 있어 계절의 변화를 담고, 새로운 음식을 나누는 의례의 기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형식과 제수에 제약이 없었던 차례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실과 사가, 그리고 불가에서 소제와 대체 혹은 별제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게 되면서 중사의 범위가 넓게 행해지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茶禮에도 점차 제수를 많이 올리는 양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행례(行禮)의 시각도 하루 중 아무 때라도 무관하였다. 왕실에서 주茶禮는 정오에 지내고, 능묘제사는 해가 있을 때 지내면 되었다. 민가의 속절 茶禮제사와 생신차례는 대개 새벽이나 아침에 행해졌다. 설날제사가 제석날 밤에 행해지기도 하였는데, 茶禮는 아침이나 낮이나

밤에도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茶禮는 제수와 예법이 대체로 간편하면서도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한 의례이다.

차례의 근대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34년 일제는 「의례준칙」을 통해 ‘사시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제례의 기준이 ‘기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 종류도 ‘기제와 묘제’의 2종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1957년 ‘혼상제례준칙제정위원회’에서 제정된 「의례규범」에 제시된 제례는 ‘기제와 정조제(正朝祭), 묘제’의 3종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기제 중심’의 제례 기준이 유지되면서 설과 추석의 차례가 제사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추진된 법·제도의 변화과정도 ‘기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례 기준의 정착과 차례의 제사 편입이 지속되면서 일반화되고 획일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미디어 담론과 차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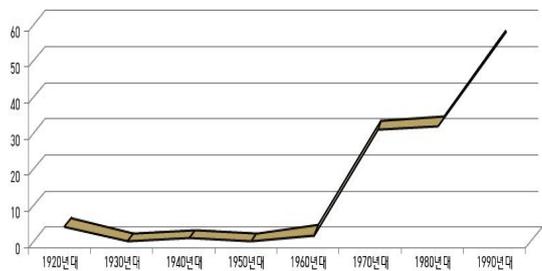
3.1 미디어 담론에 나타난 차례의 제사 인식

농업을 생업 기반으로 하였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해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축일(祝日)로 삼았는데, 정월의 설날과 대보름, 이월의 한식, 사월의 초파일, 오월의 단오, 유월의 유두, 칠월의 백중, 팔월의 추석, 십일월의 동지 등이다. 이러한 명절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생략되었고, 설과 추석만을 대표적 명절로 인식하게 되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명절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전통문화인가에 대해서는 제례의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농경문화에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점과 땀 흘려 일군 농사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서 설과 추석은 중요시되었고, 세시풍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제사의례로 편입된 설과 추석의 차례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로 양력의 도입과 법정 공휴일의 지정을 들 수 있다. 양력의 사용은 을미개혁을 통해 도입되어 1896년부터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하였다. 이후 이승만과 박정희정권에 의해 중요시되었으나, 대중은 양력설보다는 음력설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대중의 선택은 결국 1985년

부터 1988년까지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6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1989년에 음력설을 ‘설날’로 지정하고 3일간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가위로도 불리는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일(嘉俳日), 한가위, 팔월대보름 등으로도 부르는데,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로 하였던 것이, 1989년부터는 3일간을 법정 공휴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과 추석에 법적으로 보장된 3일간의 공휴일은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양력을 기준으로 한 일상생활 가운데,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이점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지역을 떠나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명절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과 추석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풍속에서 차례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지닌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차례 문화가 현재와 같이 제례 형식의 일반화된 유교의례가 아니었음에 착안하여 차례를 중심으로 제례 문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례의 진승 과정에서 ‘사시제 중심’의 유교 제례가 ‘기제 중심’의 ‘유교식 제례’로 변화되어 정착되었다.



[그림 1] 근대 이후 ‘차례’ 관련 기사의 게재 현황

‘기제 중심’의 제례로의 변화는 1934년 일제에 의해 진행된 「의례준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1980년대에 집중된 신문문을 통해 형성된 미디어 담론에 의해서였다. 1921년부터 1999년까지 근대 의례 기간 중 ‘설과 추석 차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매년 설과 추석 차례가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면서 차

례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신문의 주도로 진행된 차례를 통한 제례 문화의 변화를 ‘차례 만들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신문사별로 진행된 ‘차례 만들기’에는 다양한 논리가 동원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상차림’에 대한 변화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명절 상차림’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명절 차례상 차림’으로의 전환은 차례를 명절의 대표적 상징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진설(陳設) 절차에 대한 논의나, ‘홍동백서, 동두서미’ 등과 같은 진설 방법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기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각 지방과 집안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가가례(家禮)’의 논리를 등장시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1970년대 ‘상차림’의 기사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금기사항’에 대한 내용 등이 기사화되면서, ‘차례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었고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근대이래 후기 ‘차례 만들기’에 집중한 신문 기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인식한 ‘전통 차례’의 형식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례 만들기’의 과정은, 한 신문사에서 먼저 기사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명절에는 다른 신문사에서 이에 동조하여 기사화하는 등의 릴레이식 전개를 통해 진행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각 신문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차례 만들기’의 과정에서 진행된 다양한 시도와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3.2 미디어 담론의 ‘차례 만들기’의 진행양상

신문 기사에 나타난 차례의 제례 편입은 ‘차례’에 대한 기사화의 과정에서 ‘제사’와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의례적 근대 후기 신문을 통해 새롭게 차례 문화를 등장시키게 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차례 만들기’의 주제를 제공한 주체가 누구였는지의 문제이다. 기사의 출처를 살펴보면 1970년대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1980년대까지는 ‘성균관’과 ‘유도회(儒道會)’가 그리고 1990년대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사 출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기적 특성과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70년대는 박정희정권의 유지·강화 전략에 순

응하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새마을 운동’, ‘가족계획운동’, ‘훈·분식 장려운동’ 등이 진행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차례 만들기’에 동원된 관련단체인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박정희정권이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자본의 조달을 위해 가정을 동원한 ‘가계부 적기 운동’을 주도한 단체이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각 신문사에 제공한 설·추석 관련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푸짐한 것보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1971. 09. 29, 경향신문), 추석에 분식 상차림(1971. 10. 01, 동아일보), 설床은 간소하게(1973. 12. 24, 매일경제), 설 상차림 5인 가족 1만 9천원(1976. 12. 27, 조선일보)” 등 주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명절 음식을 위주로 작성되어, 소요 비용이나 명절 음식의 조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제공한 ‘명절 상차림’에 대한 기사의 목적이 절약에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설과 추석상’에 들어가는 비용과 음식물에 대한 기사로 제한되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는 박정희정권이 붕괴함에 따라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새롭게 ‘명절 차례상 차림’이 등장하고, ‘차례 만들기’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1980년대에 진행된 ‘차례 만들기’에는 1970년대와는 달리 ‘성균관과 유도회(儒道會)’가 동원되었다. ‘성균관과 유도회(儒道會)’ 관련 기사를 통해 정형화된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던 차례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주요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차는 가정의례준칙을 따른다 해도 차례상차림만은 격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차례상을 살펴본다[2].

올해부터 민속의 날로 명명, 공휴일로 지정된 지정(20일)을 앞두고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추최, 여성유도회 및 청년유도회 주관의 祭禮儀式계몽운동이 16~19일 나흘간 벌어진다. 기간중 서울역, 청량리역과 서울시내 3개 버스터미널 등에서 제례의 의미, 진행방법과 민속놀이 등이 담긴 팸플리트 10만부가 귀성객과 청소년들에게 배포된다. … 차례는 원칙적으로 기제의 절차에 준한다. …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도 紅東白西 棗栗柿梨의 두

가지 진설법으로 나누어 차려져 왔다[3].

제사상차림은 기제사 때와 거의 같으나 정월 차례에는 시식인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는 게 다르다[4].

차릴 때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차례상을 전통 예법대로 차리는 것은 후손들의 도리이기도 하다[5].

이를 살펴보면, 禮書에서 언급된 바 없는 ‘홍동백서’ 등의 진설 논리가 ‘성균관과 유도회’를 통해 전통문화로 제시되면서, 1980년대 ‘차례 만들기’의 확산과 정착의 과정에 ‘전통’의 논리를 차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차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차례 만들기’의 과정에는 ‘대한 주부클럽연합회’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 주부클럽연합회’는 가정주부로 하여금 주부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숨겨진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기능의 담당자로서 지역 사회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사회, 환경, 소비자 운동 관련 민간 단체로 1966년에 창립되었으며, 2014년 3월에 ‘한국여성 소비자연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시기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차례상 차림이나 차례를 지내는 예법은 지방이나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난 1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권장하고 있는 간소한 추석 차례상과 그 절차를 알아본다. 차례상은 기제사 때와 거의 같으나 추석에는 밥대신 햅쌀로 빗은 송편과 햇과일을 올리는 게 특징[6].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제사음식 차려놓는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설날 상차림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몇가지 기준이 있다[7].

추석날 지내는 차례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와는 달리 차리는 음식이 다르다. 제사 때 올리는 메(밥)과 갱(국) 대신 햅쌀로 빗은 송편과 햇과일을 올리는 게 특징이다[8].

설날 아침에는 세찬과 세주를 장만해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온 가족이 모여 음복하는 것이 우리

의 오랜 전통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상에 진설하는 격식이다. 이 진설법은 예부터 가가례라고 하여 지방마다 가정마다 다른 것이 보통이었다[9].

차례상 차리는 법과 제사모시는 순서는 가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전례연구위원회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거해 보급하는 추석 차례상 차리는 법은 다음과 같다. 제상 진설에는 크게 다섯가지 원칙이 따른다. …신주마다 한 접시씩 올린다고 강정희(姜正熙)전례연구위원장은 말한다[10].

이상의 기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시기별로 점차 확장된 ‘차례 상차림’에 대한 논의에 다양한 시도가 정착을 통해, ‘명절 상차림’에서 ‘차례 상차림’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8년 12월 동아일보의 “새해 차례상 차리기”기사에서, ‘먼저 제사지낼 대상과 참가자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1983년 9월 20일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차례를 ‘속절제사’로 소개하고, ‘제식절차는 기제가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1985년 2월 매일경제신문의 “민속의 날, 차례상 차림법”에서 게재된 진설도그림의 제목으로 ‘제사상 진설도’를 게재하는 등, 1980년대 ‘차례 만들기’의 진행 초기에는 차례를 기제와 동일시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사화된, ‘차례=제사’, ‘차례상=제사상’, ‘제상 진설의 원칙’ 등의 논리는 차례를 전통문화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차례는 제사와 동일시되면서 제례 문화로의 편입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4. 차례의 제례화와 미디어 담론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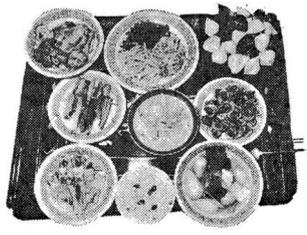
4.1 ‘명절 상차림’과 ‘차례 상차림’의 변화

신문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담론의 ‘차례 만들기’와 관련하여 기사의 변화양상에서 중요한 특이점으로 ‘상차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차례가 제사의례로써 중심적 역할로 자리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생산된 신문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까지 ‘상차림’에 대한 기사는 ‘명절 상차림’으로 기사화 되었는데, 기사내용의 대부분은 명절을 맞이하여 음식상을 차리거나 손님께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그러나 1980년 매일경제신문을 시작으로 ‘차례 상차림’에 대한 기사로 대체되면서 기사 내용은 ‘차례상’을 중심으로, 차례와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정립되는 양상으로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형의 형식을 가지지 않았던 명절차례가 신문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면서 차례에 형식과 절차가 덧붙여지고 ‘가가례’의 논리로 포장되면서 규정화가 시도되었다. 더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제수의 진설법이나 진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관련 내용의 규명작업 없이 보도를 통해 전파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80년대 전·후 상차림의 변화

구 분	1979년 이전
기사 내용	추석 상차림과 음식 만드는 요령, 요리강습회, 낭비 없는 추석상 등
기사 자료	 <p>축활할로로로 구만 추석상차림. 송편</p> <p><추석 상차림 사진, 1978. 9. 12 동아일보></p>
구 분	1980년 이후
기사 내용	진설법, 가가례, 금기, 봉사대수, 차례절차 등
기사 자료	 <p>정성껏 차려진 추석차례상. 상은 북쪽을 향하게 하고 격식에 따라 차례대로 음식을 놓아야 한다.</p> <p><추석 차례상 사진, 1985. 9. 26 경향신문></p>

1970년대까지 ‘추석 상차림’이었던 기사 내용이 1980년대 이후에는 ‘추석 차례상’으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과 게재된 사진을 비교하면 ‘상차림’의 관점에

서 어떻게 변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상차림’과 ‘차례상’의 항목을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상차림’과 관련된 기사는 1959년 조선일보의 “정월보름 상차림”의 기사를 시작으로 1982년 조선일보의 “추석다례(秋夕茶禮)는 이렇게…”의 기사까지 총 34회가 게재되었다. 반면, ‘차례상’과 관련된 기사는 1974년 9월 동아일보의 “상차림 보다는 여유로 맞자”는 기사를 시작으로 1999년 9월 매일경제신문의 “가짓수 너무 따지지 말고 정성 담아야”까지 총 87회가 게재되어 1980년을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차례상차림’으로의 변화는 1982년 9월 조선일보의 “추석다례(秋夕茶禮)는 이렇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추석다례(秋夕茶禮)를 지내고 있지만 7가구 이상이 제사 지내는 법을 대충 알거나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하였던 것처럼 차례와 제사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세부적인 절차와 진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는 차례의 시기와 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한 기사로 이어지면서, 구정(舊正)에 대한 기사나 차례절차는 물론 진설도를 통한 ‘차례 상차림’에 대한 설명, 과일 진설 순서에 대한 예시로 연결되어 차례를 전통문화로 인식하게 하는 ‘차례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차례’는 ‘전통 제례문화’로 인식되면서 대중화는 물론, 형식의 정형화를 통해 기제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상차림’과 ‘명절 차례상차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2 미디어 담론의 ‘명절 상차림’ 논의

명절의 풍습과 관련된 기사는 주로 명절 음식과 차례 등 명절의 일상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920년대 명절 풍습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추석이되면 떡을 맨들고 과실을사서 제물을 준비해야 가지고 …집안에서 혹은 산소에 가서 다례를 지내는 일이 잇는데<금일은 추석, 1921. 09. 16, 동아일보>
 근년에도 설,한식,추석,동지를 사명절이라하여 집집이 산소차례까지 지냈습니다.<추석은 금일, 1924. 09. 13, 동아일보>

一年에 祭日이四名節로 元朝寒食端午秋夕이다.
 …寒食과秋夕에는 반드시 拜墓하는 것이 우리나라의習俗이다.<한식, 1925. 04. 06, 동아일보>

이상의 기사에서 명절에 시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명절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4명일로 설, 한식, 추석과 단오 또는 동지를 명절로 하였다는 것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명절의 기사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던 1970년대 ‘명절 상차림’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였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祭床엔 마늘·고추·「치」자 생선 안썰, …성묘를 갈 때 祭需를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일반화돼있으나[11]

추석상에 갖춰 추석상차림의 본보기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되 유과 강정 적포 술은 차례음식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차리지 않아도 좋다[12]

일년동안 애써 가꾼 햇곡식과 과일로 정성들여 차례상을 올리고 가족들이한자리에모여 즐기는 한가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잇는 명절[13]

위의 기사에서 ‘명절 상차림의 본보기를 가족에게 보여주되 차례 음식은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처럼, 1970년대에는 명절의 일상에서 ‘명절 상차림’이 ‘차례상’보다는 우선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1970년대까지 차례가 아직 명절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례보다는 ‘명절 상차림’이 더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상차림은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할 때 상에 차리는 주식과 찬품을 놓는 위치나 순서, 종류 등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상차림은 주식에 따라서 반상(飯床), 죽상(粥床) 등 ‘일상식’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차리는 ‘명절 상차림’ 등으로 구분한다.

‘명절 상차림’은 계절에 따라 계절에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인 시식(時食)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70년대 설맞이 또는 추석상차림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실속위주로 가족들이 모두 즐기는 음식을 두어 종류 마련하는 것이 현명… <“푸짐한 것보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두종류쯤 마련, 1971. 09. 29, 경향신문>

추석상에서 빠질 수 없는 토란탕(국)은…햇음식으로 장만한 추석음식을 앞에두고… <추석 간소하고 단란하게, 1972. 09. 20, 동아일보>

다례엔 포와 술을 곁들여(女性貯蓄生活中央會서상차림 본보기) …연말연시의 낭비를 막기위해 간소한 설맞이상차림본보기를 내놓았다. 설 준비는 가계부의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차릴 것을 권장하고…<설床은 간소하게 1973. 12. 24, 매일경제신문>

모든 상차림은 번거롭지 않게 간소화하며 떡국상이나 밥상을 차리지 말고 차 대접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해 설맞이 예절, 1973. 12. 29 동아일보>

합리적인 추석상으로는 토란탕 김치 나물 3가지 전1가지 적1가지 포1가지 과일3가지와 술을 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포·술은 차례음식이므로 차례를 지내지않는 가정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항목…<간소한 추석 상차리기, 1975. 09. 16, 경향신문>

허례허식에 치우치지 않은 간소한 차림으로… 추석상차림, 적 포 술은 차례음식이므로 차례를 지내지 안흔 가정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浪費없는 仲秋節을, 1975 9. 16, 동아일보>

추석상에 갖춰 추석상차림의 본보기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되 유과·강정·적·포·술은 차례음식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차리지 않아도 좋다… <정성담아 조출하게, 1978. 09. 12, 경향신문>

新正床 차림요령 … 正初엔 차례(茶禮)를 지내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조출한 음식을 장만할 필요가 있다…<정갈하고 간소하게, 1981. 12. 26, 매일경제신문>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설맞이 또는 추석 상차림은 가족이 명절을 맞이하여 즐기는 음식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간소하게 차린다.’던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조출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의 종류도 ‘토란탕, 김치, 나물 3가지, 전·적포 각 1가지와 과일 3가지와 술’을 예로 들고 있어서 차례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앞서 풍습의 분석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례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 이전까지 명절에서 ‘차례상’보다 ‘명절 상차림’이 우선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 차례 음식에 대해서도 ‘적·포·술’ 또는 ‘유과·강정·적·포·술’ 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례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4.3 ‘명절 차례상’의 등장과 미디어 담론의 역할

1980년대에는 ‘명절 상차림’의 보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명절 차례상’에 대한 기사로 대체하면서 차례의 진설과 순서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차례와 기제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박정희 정권의 붕괴로 인한 「가정의례준칙」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기사를 살펴보면

차례의 전통차례상 진설법과 절하는 법, 차례 순서를 알아본다. 상차림은 기제사때와 거의 같으나 정초 차례에는 시식(時食)인 떡국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선조(先祖)얼 되살리는 구정(旧正)차례 이렇게>, 1987. 01. 28. 조선일보>

차례 : 추석·설날·한식 등 명절에는 제사가 아닌 차례를 지낸다 <다례상차림은 이렇게>, 1988. 09. 21. 동아일보>

차례상 차림, 차례상 차림은 기제사때와 거의 같으나 <한가위 다례상(茶禮床)>, 1988. 09. 24. 조선일보>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으로는 인절미·산적·삼색나물·나박김치·포·대추·밤·꽃감·배·사과·약과·산자·식혜·수정과 등이 있다 <93년만에 되찾은 우리 「설날」>, 1989. 02. 02. 경향신문>

차례지내기 … 고조부도 4대까지만 차례를 모시고 5대조 이상의 조상은 10월 시제 때 함께 지낸다. 차례상의 상차림과 차례절차는 기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 <세뱃돈 풍습 1930년대 이후 생겨, 1998. 01. 20, 매일경제신문>

‘차례 만들기’가 본격화한 1980년대 관련 기사의 내용 중에서 ‘진설법과 차례 순서, 절하는 법 등이 기제와 거의 같다.’고 보도하였던 것과 같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차례를 기제사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명절의 보편적 행위로 차례를 일반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차례 만들기’의 진행 초기단계에 정형화된 차례의 형식과 진설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자 ‘기제’를 기준으로 하여 차례와 비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차례를 기제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차례의 연속선상에서 전통문화로 차례를 이해하게 되었다.

‘명절 차례상’은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에게 올리는 차례의 의례적 성격으로 인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명절 상차림’과는 다른 의례이다. 기사의 관점이 ‘명절 상차림’에서 ‘명절 차례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명절을 이해하는 의례적 성격이 산자 중심에서 조상을 중심으로 바뀌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차례상’에 대한 기사는 1974년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1990년에 이르러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례 만들기’가 본격화된 1980년대의 제수와 진설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에게 茶禮를 지내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秋夕 固有의 멋과 禮法 살리자>, 1983. 09. 15, 매일경제신문>

상차림 = 조상들에게 풍년을 고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茶禮의 본뜻이므로 … 차례상 차림에는 정해진 격식을 따르게 마련 <차례상 차리는법>, 1985. 02. 18, 동아일보>

설날의 … 차례에 대해서도 이제 옛 격식이 많이 잊혀져가고 있다. … 현재 보편화돼있는 차례와 기제사 예법은[19]

성균관이 정리한 대표적제사상을 중심으로 상차림요령을 알아본다 <추석(秋夕) 상차림·차례는 이렇게>, 1985. 09. 27. 조선일보>

차례의 전통차례상 진설법과 절하는 법, 차례 순서를 알아본다. 상차림은 기제사때와 거의 같으나 <선조(先祖)얼 되살리는 구정(旧正)차례 이렇게>, 1987. 01. 28. 조선일보>

구정인 민속의 날(18일)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이제 80% 이상이 이날 차례를 지내고...차례상은 유교전통양식에 따라 가정마다 차이... <다례상 형편따라 정성껏, 1988. 02. 16, 경향신문>

차례상 차림은 기제사때와 거의 같으나 성균관이 정리한 추석차례상을 보면...<가득한 정성 간소한 차림>한가위 다례상(茶禮床), 1988. 09. 24. 조선일보>

차례상은 기제사때와 거의 같으나 추석에는 밥 대신에 햅쌀로 빚은 송편과 토란탕, 햇과일을 올리는 게 특징이다...<한가위 3일연휴 - 즐겁고 보람있게, 1989. 09. 07, 동아일보>

이상의 기사에서는 앞선 1970년대의 논의와는 달리 ‘차례와 차례상차림이 정해진 격식’이 있다거나 ‘전통 차례상으로 진설법’이 있다는 주장이 보이고, 차례상이 유교의 전통 양식에 따라 지내야 하며, 특히 성균관에서 추석상에 대해 기제사와 동일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 중 특이사항으로는 1988년의 기사에서 해마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크게 늘어 이제는 80%가 지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설날의 지정과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세시풍속은 생업에 기반하여 관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례 행위로 이해된다. 시대변화에 따른 세시풍속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풍속으로 설과 추석의 차례가 있다. 더욱이 차례가 제사로 인식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제례의 전승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차례를 통한 근대 제례로의 변화와 정착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연구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 의례 후기에 집중된 미디어 담론의 역할이다.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통해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의 창달에 전력하여야 하는 언론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제사를 대상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담론은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없이 접할 수 있는 ‘설과 추석 차례’에 대

한 보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1921년 ‘한식 성묘’에 대한 기사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게재된 135개의 기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명절 상차림’의 전승 시기로, 1980년대부터는 ‘명절 차례 만들기’를 통한 변화의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사 내용의 분석을 통해 ‘명절 상차림’이 전통 풍습과 명절 상차림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던 반면, 미디어 담론이 집중한 ‘명절 차례 만들기’로 변화과정에는 제수의 준비와 진설, 가가례와 금기의 논리 등을 통해 차례의 제사화 논의는 물론 제사의 규격화를 시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차례의 다양한 담론과 확립화된 모델은 제례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디어 담론이 집중한 차례의 제사화 논의는 <가정의례 준칙>의 정착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요구에 부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요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지라도, 신문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제례는 외부와 단절된 집안 내의 전통으로 이해되면서 국가의 의례 통제 중심에 있었던 상례와는 다르게 변화양상을 포착하기 어렵게 하였다. 더욱이 설과 추석 차례에 대한 기사가 근대 후기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어느 순간 ‘가가례(家家禮)’의 논리로 포장되어 제례의 절차와 내용을 일반화하였다. 그 결과 유교 의례의 틀을 벗어난 ‘유교식 제례’를 정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차례의 제사화를 주도한 미디어 담론의 결과는 ‘결혼 상대로 장남을 기피한다’거나 ‘명절이후 이혼의 증가한다.’는 명절 증후군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전통문화의 왜곡을 주도하였고, 차례의 제사화는 물론 가가례 등의 논의를 통해 제사문화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였다. 미디어담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논의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원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시대상을 반영한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홍만선, 『증보산림경제』, 83쪽, 민족문화추진회,

1983,

- [2] “舊正 茶禮床 차리는법”, 1981. 2. 4, 매일경제신문
- [3] “民俗의 날 茶禮·床차림법”, 1985. 2. 14, 매일경제신문
- [4] “民俗의 날 茶禮·床차림법”, 1985. 2. 14, 매일경제신문
- [5] “정성짓든 차례상 예법따라 올려야”, 1989. 2. 5, 한겨레신문
- [6] “차례상 차리기”, 1990. 9. 26, 동아일보
- [7] “차례상은 다섯줄 적당”, 1992. 2. 1, 경향신문
- [8] “차례상 차림 이렇게”, 1992. 9. 6, 한겨레신문
- [9] “밥대신 떡국 올려야, 설차례상”, 1993. 1. 21, 경향신문
- [10] “축문 생략-술잔은 한번...기제사(忌祭祀)와 차이”, 1993. 9. 28, 조선일보
- [11] “추석 알뜰명절위한 주부의 지혜”, 1977. 9. 23, 경향신문
- [12] “정성담아 조출하계”, 1978. 09. 12, 경향신문
- [13] “추석상(秋夕床)차림 5인(人)가족 12,240원”, 1978. 09. 14, 조선일보

이 철 영 (Lee, Chul-Young)



- 2023년 6월~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2019년 9월~2024년 8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2014년 3월~2019년 2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 2019년 2월: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문학박사)
- 2007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문학석사)
- 관심분야: 일생의례, 상·제례학
- E-mail: welldying88@naver.com